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 1[※]

: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김덕호

(경북대학교)

Abstract

Kim, Deok-ho. 2017.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hanging Process of Dialect Distribution with a focus on Methodology of Geolinguistic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5(1). 1~2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dialects through a geolinguistic approaches. Traditional studies in dialectology were generally aimed at describing the geographically distributed variation of language. However, with traditional approach, it would be difficult to analyze the complex reason for the changes in dialectal distributions. Since the geographical factor is not the only reason for language chan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factors in examining language maintenance and change.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dialects and explore its changes, the primary work involves thorough field surveys, and the next step is to draw a language map with well-organized dialect data. The present study employs a field survey method and draws a language map based on the field survey resul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geolinguistic methodologies for analyzing the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dialects that can be confirmed on a language map constructed on such a basis. Geolinguistics analysis methods are as follows: 1) analysis by non-verbal conditions, 2) real time analysis, 3) measurement of innovation wave spreading speed, 4) surrounding-zones dialect theory, 5) principles of adjacent distribution and around distribution, and 6) S-curve theoretical analysis.

Keywords: dialect research, dialect distribution, distribution changes, dialect contact, changing process, geolinguistic methodology

※ 이 논문은 '언어 접촉과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5년 한국사회언어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2015년 4월 11일,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5734).

1. 머리말

언어학의 분류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언어를 좁은 시야로 볼 것인가, 넓은 시야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미시언어학(소언어학 *microlinguistics*)과 거시언어학(대언어학 *macrolinguistics*)으로 나누기도 한다. 즉 미시언어학은 언어 구조 그 자체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비하여 거시언어학은 언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20세기 실증주의 언어학의 기조는 미시언어학을 언어학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았다. 하지만 다른 학문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언어학도 가능한 한 넓은 시야를 가져 한다(김방한 1992: 58). 결국 이러한 표현은 언어학의 연구 영역 및 방법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방언학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시언어학의 연구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 분포의 변화는 방언 접촉의 역사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방언 접촉은 방언학에서 말하는 개신파의 이동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방언의 변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특정 지역에서 언어의 변화는 공간적인 방언 분포의 변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언어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방언에서 보이는 언어적인 추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을 고려한 분석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 출발점은 방언 분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방언 내적 요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 및 방언과 무관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통상 방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언어 내적 요인으로 이것은 방언 체계의 내적인 변천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언어 외적 요인으로 이것은 다양한 방언 변이형들의 접촉으로 기인한 것이다. 셋째, 언어와 무관한 요인으로 이것은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변수 등이 해당 지역 언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를 지리적으로 분포되는 변이로 취급하는 것에서 방언 연구가 성립된다는 것이 방언학의 주된 입장이다.¹⁾ 이러한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지역 언어의 복잡한 분포 변화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언어의 변화와 관련 있는 환경은 지리적인 측면만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존립과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어 분포를 확인하거나 그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를 위해 선행해야 할 작업은 필드 조사와 언어지도를 그리는 일이다. 본 연구도 언어 분포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므로 기본적으로 필드 조사의 결과와 이를 토대로 그려진 언어지도를 바탕으로 한 연구 방법이다. 본고는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토대로 제작된 언어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포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지리언어학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 방언학 연구의 한계 극복

방언학 연구의 한계에 대한 우려는 근대화와 도시화에 따른 필드 조사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전통방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런 회의가 퍼져나가면서 심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언학 연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믿는 연구자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사회방언학 분야는 지금까지 사회언어학에서 설정해 왔던 다양한 분석 방법과 그 외 지리적, 문화적 지표도 활용하는 연구법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 왔던 방언학(전통방언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방언은 언어이며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사람은 각각의 공동체에서 살고 그 공동체는 지역적 공간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방언이란 동일 계통 언어의 지역적인 변이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발생한 언어 변화

1) 송완용(2009: 8)은 현재 독일에서도 방언학은 언어의 변이현상을 취급하는 '변이언어학'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화된 것을 언어화한 것으로 방언학에서는 이차원적인 분포의 변화로 나타난다.

질리에롱(J. Gillieron)은 프랑스 언어들로부터 단어에는 각각의 역사가 있고, 언어의 변화를 언어학적 추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통해 규명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를 탄생시켰다. 그 분야가 바로 언어지리학(Linguistic geography)이다.²⁾ 언어지리학이란 한마디로 단어의 분포로부터 단어의 역사 내지 변화를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真田信治 1995: 98). 이처럼 방언의 지리공간상의 분포와 특징을 연구하는 분야가 지리언어학(언어지리학)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 연구의 관심 영역은 명확하다.

첫째는 방언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은 방언의 분포를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방언구획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동일 방언 공동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방언의 특징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이 개별 방언론이다. 셋째, 몇몇 방언 공동체 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의 과정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에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언어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시바타 다케시(紫田武)는 방언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의 분포를 근거로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언어지리학이라고 밝히고 있다.³⁾

그런데 앞서 제시한 것처럼 지리언어학 연구의 주된 관심 가운데 방언의 분포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방언권역을 구획하기 위해 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적용은 방언 분포의 연구에 있어서 공시적인 관점이라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방언 분포에 관한 공시적인 관점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시도이다. 즉 방언 연구 중에서 방언 간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언 분포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이러한 방언

2) 언어지리학(Linguistic geography)은 지리언어학(Geolinguistics)이라고 하고, 방언지리학(Dialectal geography)이나 지리방언학(*Geo-dialectology)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용어로 이해하면서 '지리언어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시바타 다케시(紫田武)는 《언어지리학의 방법(言語地理学の方法)》(1969)에서 2가지 언어지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즉 “언어지리학은 언어사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11쪽), “언어지리학은 언어사학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189쪽)

간의 접촉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발생한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접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가 방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방언 분포의 변화는 방언 접촉에 시간적인 변수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방언 분포의 변화는 방언 접촉이 원인이 되고, 시간적인 변수에 따른 공간적인 이동의 양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인 사고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방언 형식은 도시지역에서 태어나 그 주변부로 물결이 퍼지듯이 확장된다(지리적 전파). 둘째, 개개의 방언은 도시지역에서 생겨난 형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성립된다(사회, 문화적 수용).

언어의 공간적 전파에 뉴턴의 중력 법칙과 비슷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방언학 연구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⁴⁾ 방언 어휘 항목에 대한 중력 모델의 적용은 음성적·음운적인 항목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음운 체계와 같은 변화를 제어하는, 특별한 언어적 요인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어휘 항목도 다수 존재하며 서로 독립적이고 비언어적 요인(예를 들어 지형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전파 과정에 관한 사고는 ‘어휘 확산(lexical diffusion)’이론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었다.

이에 라보브(Labov 1994)와 트럿길(Trudgill 2004)은 인접한 지역에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 접촉에 의해 언어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밝히면서 언어 확산 이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언어 확산 이론은 ‘인접 지역의 영향(neighbourhood effect)’과 ‘언어의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라보브나 트럿길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관점을 지리언어학적으로 설명하면 언어 접촉에 의해 어느 한 쪽의 개신파가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언어 분포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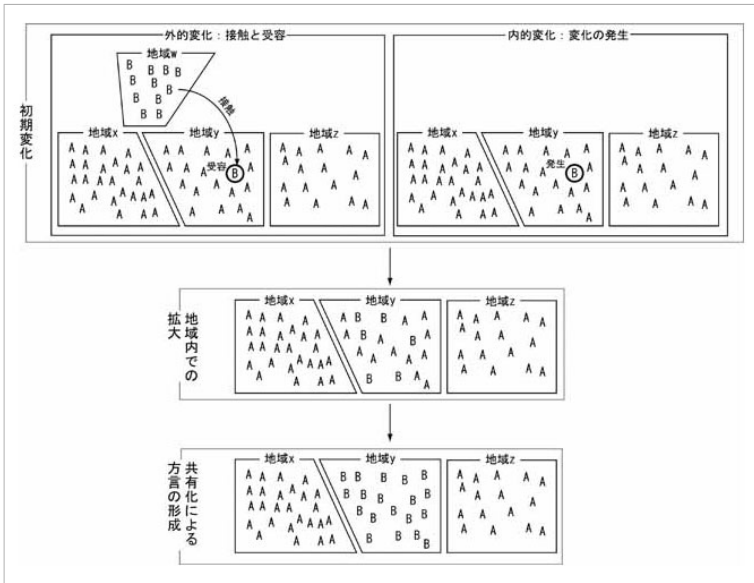
4) 방언학에 중력모델을 적용한 시도는 체임버와 트럿길(Chambers & Trudgill 1980)에 의해 소개되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 거리를 제공하는 계산법이 제시되었다.

$I_{ij} = S^* \frac{P_i P_j}{(d_{ij})^2} * \frac{P_i}{P_i + P_j}$	(I _{ij} 는 중심지 i와 중심지 j의 영향력 Influence, P는 인구 Population, d는 거리 Distance, S는 언어적 유사도 Similarity를 나타냄.)
---	--

르므로 언어 확산 이론은 궁극적으로 개신파(innovation wave)의 이동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법은 일찍이 일본에도 있었다. 즉 시바타 다케시(紫田武)는 《언어지리학의 방법(言語地理学の方法)》(1969)에서 ‘인접 분포의 원칙’과 ‘주변 분포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언 분포의 접촉에 관한 논의는 민속학자인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1930)에 의해 제안된 ‘방언주권론(方言周圏論)’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방언 접촉을 개신파의 유입과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오니시(大西)의 방언 전파와 형성의 원리를 제시한다. 오니시 다쿠이치로(大西拓一郎 2008: 23~27)는 공동체 안에서의 확산은 공간에 속박당하지 않지만, 공유 언어화된 언어 변화는 공간범위를 갖는 공동체간의 언어 차이가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방언 전파와 형성은 [그림 1]과 같이 모형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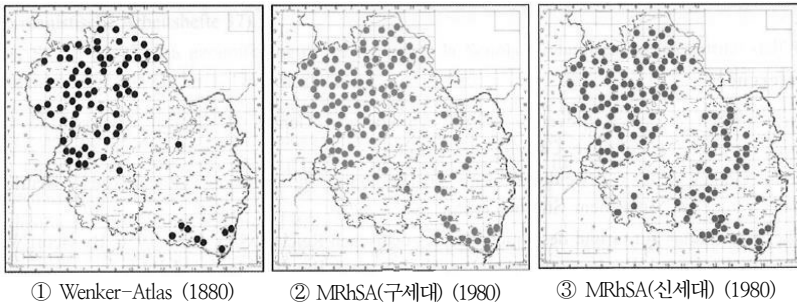


[그림 1] 오니시 다쿠이치로(大西拓一郎 2008: 23~27) 방언 전파 및 형성의 모형

3. 연구 방법의 진화

언어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간을 변수로 한 2가지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즉, 현장시간(apparent time) 연구법과 실제시간(real time) 연구법이 있다.⁵⁾ 첫째, 현장시간(apparent time) 연구법은 특정 언어 공동체에서 상이한 연령 집단이 보이는 언어 행위의 차이를 언어 변화의 결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 방법은 20년 동안의 언어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60세의 제보자와 40세의 제보자를 조사하여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가 언어 변화의 과정으로 판단하는 연구법이다. 둘째, 실제시간(real time) 연구법은 언어의 변화를 조사할 때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하여 일정한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변화를 관찰할 때의 시간적 거리에 대한 개념이다. 예컨대, 20년 동안 어떤 언어공동체에서 진행된 언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전의 조사지역에서 동일한 조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⁶⁾

다음 [그림 2]는 독일 뱌커의 ‘언어지도집’과 ‘라인강 중류지방 언어지도집(MRhSA-구세대/신세대)’으로 언어 분포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경



[그림 2] hast(‘you have’)에서의 t#-생략현상(1880~1980)
: ● 표시가 t#-생략현상 경험

5) Downes(1998: 238)는 사회언어학에서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며 실제시간 조사방법론과 현장 시간 조사방법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6) 이 방법은 현장시간에 의한 조사방법이 가지는 정확성 및 신뢰도 결여라는 약점을 보완해 준다(방언연구회 2001: 250, 405).

우이다(송완용 2009: 21~23). 이 언어지도에서 ①과 ②③ 사이의 연구법은 ‘실제시간(real time)’ 연구법이 적용될 것이고, ②와 ③ 사이는 ‘현장시간(apprent time)’ 연구법이 적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언어는 문화만큼이나 인간의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는 고도로 상징화(symbolization)된 결정체이자 최고의 문화적 산물이다.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언어는 문화를 공식적으로 전파하고 통시적으로 전승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문화와 언어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 언어학 분야에서 연구는 실증적,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게 되고 문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차츰 줄면서 양적 연구 방법에 치우쳐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연구 방법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20세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증명하고자 적용한 양적 연구 방법과 문헌연구와 양적 연구의 방법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도입한 질적 연구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통합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이다(김덕호 2014: 3).

김덕호(2015: 71)는 방언학 연구에서 언어 분포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 방법 및 문헌 연구와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통합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까지 언어학에서도 언어의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언어과학 현상을 문화라는 질적 현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대두되면서 종래의 양적 연구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은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 언어 외적인 부분인 지리,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을 함께 분석하여 그 의미를 탐구한다는 목적을 감안한다면 어찌 면 필연적일 수 있다.

물론 지리적 분포와 사회적 양상의 변화 측면은 양적인 연구와 분석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지리 문화나 사회 문화와 같은 문화적인 양상에 따른 변화의 측면은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고려하여 질문 문항이나 조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⁷⁾

이러한 연구 분석 방법의 진화를 고려하여 김덕호(2015: 72~89)는 3가지 확장적인 분석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안 둘째, 사회방언학적 분석 방안 그리고 셋째, 문화방언학적 분석 방안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⁸⁾

4.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안

방언학 연구에서 지리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최선의 방법은 언어지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언어지도는 언어현상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설명력이 강한 진단법으로 다양한 언어현상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감할 수 있게 해준다. 언어지도는 언어의 내적 구조와 외적(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심리 등)인 기준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다차원적인 분석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송완용 2008: 2). 또한 등어선이 문화 현상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이익섭(1981: 140)은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7) 종래의 방언학 혹은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사용된 폐쇄형 질문지는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지조사의 목적에 적합한 개방형 질문지 구성을 해야 한다. 질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현지조사는 주로 참여관찰, 대화, 심층면접, 생애구술 등이 있는데, 조사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 항목을 개발하면 된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특히 '제1편 구술발화'가 질적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생활어 조사(2007~2013)에서도 개방형 질문지를 개발한 바 있다.

8) 다른 2가지 방법론에 대한 제안은 후고로 돌리고자 한다.

지역의 독자성과 개성이 여러 문화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문화 양식마다 다른 지역과 구별하는 분계선이 있을 수 있고, 등어선도 그러한 문화적 분계선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앞으로 방언학 분야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언어 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조건 및 언어와 관련된 문화 양식을 고려하여 언어 변화의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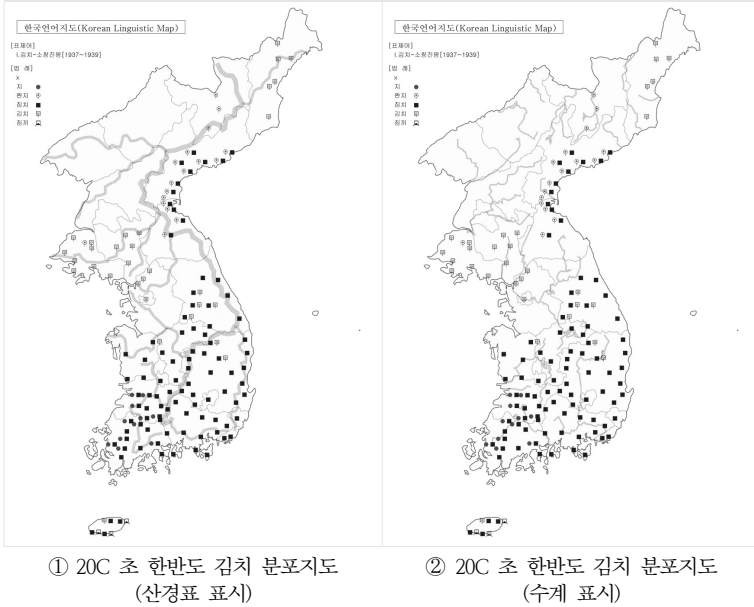
우선 방언 분포의 변화를 이차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달리 하는 동일한 지역의 언어지도가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그림 2]는 독일 벤커의 ‘언어지도집’과 ‘라인강 중류지방 언어지도집(MRhsA-구세대/신세대)’으로 언어 분포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경우이다. 이 지도에서 ①은 벤커 지도로 북서부인 모젤프랑켄 방언과 아래 팔츠 남부지역의 라인프랑켄 방언에서 100년 동안 ②(구세대)와 ③(신세대)에서 어말의 -r 를 생략하는 경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언어지도이다. 다만 이들 언어지도는 언어 내적인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는 활용도가 높으나, 그런 분포 변화의 종합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방언 분포에 대한 변화 양상은 시간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한 공간적인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여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해명하는 방안이 본고에서 적용한 지리언어학적인 방법이다.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안에는 1) 언어 외적인 조건에 의한 분석, 2) 실제시간(real time) 분석, 3) 전파 속도의 계측 방법, 4) 방언주권론 분석, 5) 인접 분포의 원칙과 주변 분포의 원칙, 6) S자-곡선(S-curve) 이론 분석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언어 외적인 조건에 의한 분석

우선 지리방언학적 연구를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도 작법 가운데, 언어 외적인 조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언어지도를 제작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즉, 산경표(산맥)를 표시한 언어지도와 수계(강)를 표시한 언어지도를 제작하여 지형적인 조건에 의한 문화적인 배경이 언어 분포의 변화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 기준

을 적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김덕호(2012: 305)는 언어 외적인 조건(지형적 조건-산경표, 수계)을 표시한 한반도 언어지도로 [그림 3]을 작성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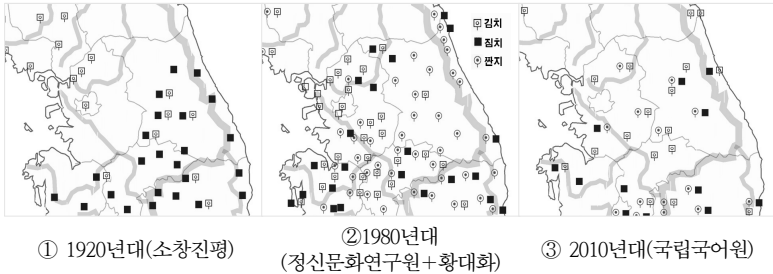


[그림 3] 20C 초 ‘김치’형 분포지도
(1910년대 소창진평 자료: 김덕호 2012: 305 재인용)

다음 [그림 4]의 3가지 한반도 언어지도는 산경표를 표시한 것인데, 이 지도를 분석해 보면, 개신형인 ‘김치(回)’형이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까지 근 70여 년간 백두대간을 넘어 동쪽 해안까지 전파되지 못했다. 결국 그러한 개신형의 전파를 막은 것은 높은 산이라는 지형이다. 그런데 21세기 초의 언어지도에서는 백두대간을 넘어 우측 지역에 개신형이 발견되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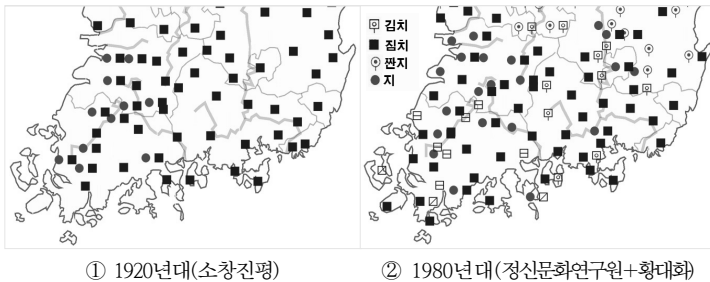
9) 필자는 지난 2년간(2013~2014) 1910년대 소창진평(1944)의 《朝鮮語方言の研究》(上·下) 방언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언어지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첩의 특징은 남북한 전역을 포함한 한반도 언어지도이면서 시·도·군경계를 표시한 일반적인 한반도 언어지도 366장과 산경표-수계-철도를 동시에 표시한 지형 표시 언어지도 366장을 구축했다.

는 최근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동해안으로 전파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김덕호 2012: 310~311).



[그림 4] 산경표 표시 중부지역 언어지도: ‘김치’ 방언형 분포 변화(20C 초~21C 초) (김덕호 2012: 310~311)

다음 [그림 5]의 2가지 언어지도는 지형적 조건이 ‘강’인 경우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전라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형의 경우 대개 ‘강’을 끼고 분포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전라도에서 ‘지’라고 하는 김치류는 주로 젓갈을 넣어 맛을 돋우는 김치인데, 그러다 보니 해산물이 풍부한 강이나 해안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고, 강과 해안을 따라 이런 김치가 전파되면서, ‘지’형 방언형도 함께 퍼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말의 언어지도를 보면 경상도 지역에서도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러한 ‘지’형 어형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 변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강’은 언어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지형으로 분석된다(김덕호 2012: 312).



[그림 5] 수계 표시 남부지역 언어지도: ‘김치’ 방언형 분포 변화(20C 초~20C 말) (김덕호 2012: 312)

4.2. 실재시간(real time) 분석

‘실재시간(real time)’ 연구법은 언어의 변화를 조사할 때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하여 일정한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변화를 관찰할 때의 시간적 거리에 대한 개념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수행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야마가타현(山形縣) 쓰루오카(鶴岡)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주기로 지금까지 4차례의 조사를 수행했다. 1차 조사가 1950년에 이루어졌고, 2차 조사는 1971년, 3차 조사는 1991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4차 조사는 2011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실재시간 대비법(real time contrast method)이라고 부른다(김덕호 2015: 86~87).

다음은 경북 상주 지역어에서 1980년대와 2010년에 20년의 차이를 두고 조사된 방언 자료 가운데 ‘식혜’의 명칭이 변화한 것을 비교한 결과이다. 다음 <표 1>은 실재시간 분석 방법으로 구축된 방언형 비교표이고, 아래 [그림 6]은 상주를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개신파의 전파 과정을 분석한 언어지도이다.

<표 1> 1980년대, 2010년대 상주 방언의 ‘식혜’ 명칭에 대한 변화 과정과 인접 방언형 비교표

표준어	경북	1980년대 상주			2010년대 상주	
		감주			감·주/단술/숙혜	
식혜	충북	문경 (‘80년대)	예천 (‘80년대)	의성 (‘80년대)	구미(선산) (‘80년대)	김천(금릉) (‘80년대)
		단술/감주	감주	감주/단술	감주	식혜
	괴산 (‘80년대)	보은 (‘80년대)	옥천 (‘80년대)	영동 (‘80년대)		
	감주	단술/(감주)	단술/(감주)/식혜	단술/식혜(제사 때)		

이 ‘식혜’를 흔히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감주, 단술’ 형이 통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상주 지역의 변화 형태는 1980년대에 ‘감주’로만 쓰이던 방언형

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감주, 단술, 숙해’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대에 쓰이던 방언형이 2000년대에 변화 영향을 끼친 변화과정으로 가장 변별적인 어휘형인 ‘단술’이 경북 문경, 의성과 충북 보은, 옥천, 영동에서 1980년대에 나타나 2000년대 상주에 영향을 주어서 방언형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 상주방언 ‘식해’ 형의 전파 지도(박지수, 김택호 2015: 345)

4.3. 전파 속도의 계측 방법

말이 통로를 따라 교류의 속도에 맞춰서 마치 기어가듯이 문화의 중심지에서 주변부로 점진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 분석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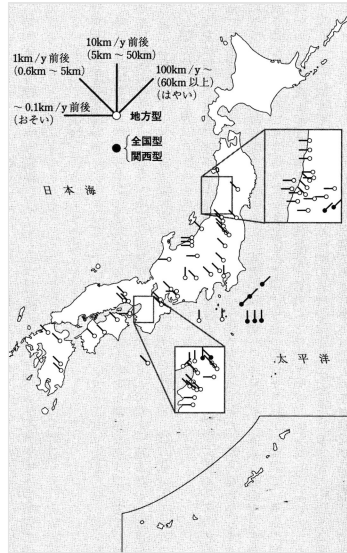
이러한 언어 전파 속도의 계측은 ‘실재시간(real time)’ 연구법과 ‘현장시간(apparent time)’ 연구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실재시간은 실제 20년이든 30년이든지 간에 경년 별로 추적 조사를 하여, 분포의 변화 정도를 가지고 해당 어휘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현장시간은 상대적인 연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동일 현장에서 연령층별로 조사하고, 이를 글로토크램(glottogram)으로 구성하여 방언 변화의 과정을 예측하면서 연령차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변화 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도쿠가와 무네마사(徳川宗賢 1993: 406)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말이 변화하는 속도를 연간 약 930m으로 보고 있다. 그 중 긴키(近畿) 중앙부에서 시

코쿠(四国)까지의 변화 속도는 대략 1230m/년, 주고쿠(中国)지방은 1100m/년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림 7]은 이노우에 후미오(井上史雄 2003)에서 현지에서 제대로 조사된 신방언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퍼졌나를 보여주는 정도를 종합한 언어지도이다. “밋페(みっぺ)”라는 말은 후쿠시마 현에서 퍼져 야마가타 현 근처 상당 지역의 젊은 사람들과 도치기 현에서도 일제히 퍼졌다. 그렇다면 이 말은 30년 동안 100km 또는 200km의 거리만큼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50년 전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방언이 지금은 몇 km 정도 확산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계산된 모든 것을 모은 것이 이노우에 후미오(2003)의 신방언 연속(年速) 종합지도이다.



[그림 7] 신방언 연속(年速) 종합지도(이노우에 후미오 2003)

김덕호(2001: 224~228)는 개신파의 전파 속도를 산출해 내려면 이동 거리와 경과된 시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개신파의 이동 거리란 사람(改新者)들이 이동한 통로의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고, 도로의 길이를 이동 거리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 거리와 경과된 시간이 나오면 다음(공식 1)을 이용해서 개신파 이동의 평균 속도를 산출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공식 2)를 활용하여 몇 개의 통로에서 산출된 평균 속력을 합쳐서 해당 개신파의 전체 평균 속도도 산출할 수 있다.

(공식 1) 개신파 이동의 평균 속력(km/년)

$$\text{개신파 이동의 평균 속력} = \frac{\text{이동거리}}{\text{경과된 시간}} \text{ (km/년)}$$

(공식 2) 전체 개신파의 평균 속도(km/년)

$$\text{전체 평균 속도} = \frac{\text{속도 } a + \text{속도 } b + \text{속도 } c + \dots + \text{속도 } n}{n}$$

김덕호(2001)은 경북 지역에서 이루어진 어두 스경음화 개신파의 평균 전 파 속도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어휘 ‘쌀밥’을 통해 경북방언에서 어두 스경 음화 개신파의 평균 속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그림 8]과 같은 2개의 글로토그램(glottogram)을 만들었다.

(가) 의성읍에서 청도읍까지

80대			○		○		○
70대		●	○	○	○	○	○
60대	●	●	○	○	○	○	
50대	●			●			○
40대		●	●	○/●		○	○
30대							○
20대			●				○/●
	의성	금성	우보 의흥 고로	신령 청룡 화산	금호 영천	진량 압량 자인 경산	청도 화양

(나) 봉화 소천에서 포항 장기까지

80대	●		○			○				○
70대	●	●	○	○		○		○	○	○
60대		●	●		○/●	○		○	○	○
50대	●		●	●	●	●	●	○	○	○
40대	●					●	●			○
30대			●			●			●	
20대		●						●		●
	소천	영양	진보	청송	부동 부남 현동	죽장	기북 신광	홍해	연일 대송	대보 구룡포 장기

(● 실현, ○ 비실현)

[그림 8] 경북방언 어두 스경음화 개신파의 평균 속도 산출용 글로토그램(glottogram)

(가) 경로에서 의성에서 영천까지 약 3.28km/년과 영천에서 청도까지 2.77km/년이 산출되었고, (나) 경로인 봉화 소천에서 포항 장기까지는 대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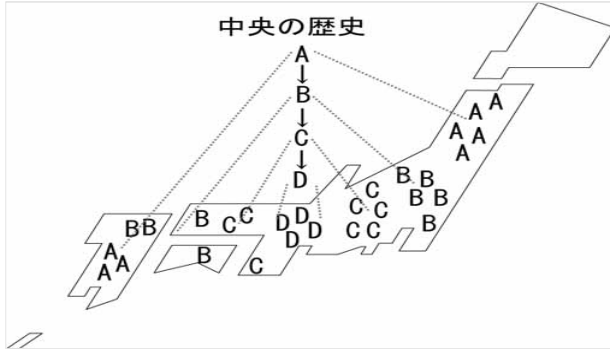
4.44km/년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평균 속도를 산출하면 3.50km/년이 나왔다.

4.4. 방언주권론 분석¹⁰⁾

20세기 초 일본의 민속학자인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1930)의 방언주권론(方言周圈論)은 방언의 분포와 변화 과정에 대한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법론 중에 하나이다. 이 사고법은 다음 [그림 9]처럼 문화적 중심지에서 비롯된 개신형인 D가 주변지역으로 퍼져 가면서, 결국은 옛 어형인 A의 영역을 크게 양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중심지에서 멀면 멀수록 고풍을 유지한다는 원리이다. 즉 언어의 역사적인 변천을 고려하면 A(고형) > B > C > D(신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볼 때 'A-B-C-D(문화의 중심)-C-B-A'처럼 지리적인 분포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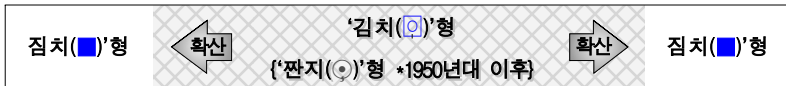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는 《카규코(蝸牛考: 달팽이론)》(1930)를 출판하여 방언 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언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 방안을 제안했다. 이 분포에서 발견된 것은 이러한 어형이 역사적으로 중앙(교토)에서 언어 변화가 순차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방언의 분포는 중앙에서 생긴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방언의 분포를 알게 되면 중앙어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언주권론(方言周圈論)으로 시간과 공간을 다른 차원으로 연결하는 이론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그림 9]). 하지만 그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카규코(蝸牛考: 달팽이론)》는 유명하기는 하지만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10) 방언 주권론(方言周圈論, Surrounding-zones dialect theory)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방언 개신이 점진적으로 이동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파동설(wave theory)과 유사한 용어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에서 주변 지역으로 개신파가 이동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이는 방언 분포의 차이를 통해 언어의 역사적 변천을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지적한 것이다.



[그림 9] 야나기타 구니오의 ‘방언주권론’ 사고법

김덕호(2012: 324-‘지도 11’, 325-‘지도 12’)에서 제시한 20세기 초 (1910년대) 언어지도를 분석해보면[지도 11], 고행인 ‘김치(■)’형이 개신형인 ‘김치(□)’형에 의해 한반도의 남북한으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12]에서는 ‘짬지(⊙)’형이 전쟁으로 인한 급속한 전파로 ‘김치(■)’형의 중심지를 점유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방언주권론의 원리를 적용하여 한반도 ‘김치’ 방언형의 분포 변화를 해석하면 다음 [그림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¹⁾



[그림 10] 한반도 ‘김치’형의 방언주권론

또한 김덕호(2012: 310)는 ‘방언주권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지도 11]을 분석하면서, ‘김치’형 방언주권론의 원리와는 다르게 실현된 분포로 한반도의 동북부지역(함경북도)에서 ‘김치(□)’형이 발견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 방식으로 ‘건너뛰기 확산’에 의해 개신파가 이동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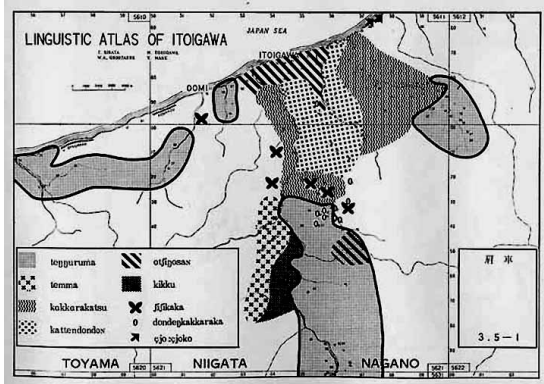
11) 본고에서 인용한 [지도 11]과 [지도 12]는 김덕호(2012: 324, 325)에서 제시한 언어지도이다.

역사적으로 정략적 이주 지역이고 유배지였기 때문에, 서울이나 중부 지역어를 사용하던 이주민이나 죄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개신어형인 ‘김치(㉠)’형이 퍼지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5. 인접 분포의 원칙과 주변 분포의 원칙

시바타 다케시(紫田武)는 그의 저서 《言語地理学の方法》(1969)에서 그러한 언어의 역사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지리적 분포에 근거한 방법인 ‘인접 분포의 원칙(隣接分布の原則)’과 ‘주변분포의 원칙(周辺分布の原則)’을 제안하고 있다.¹²⁾ ‘인접분포의 원칙(隣接分布の原則)’은 A-B-C와 같이 어형분포가 2차원 공간상에서 배열되는 경우, 언어 변화의 역사는 A→B→C 혹은 C→B→A 중 하나로 설정된다. 그리고 A가 분포하는 지점이 이 지역의 중심지인 경우에는 C→B→A라는 변화의 역사가 요구된다. 이것은 야나기타(柳田)의 방언주권론과 유사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것은 ‘주변분포의 원칙(周辺分布の原則)’이다. 즉, A-B-A와 같이 어형이 2차원 공간상의 배열을 보이고, 어형 B 지점이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인 경우의 역사는 A→B로 된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야나기타(柳田)의 방언주권론에 해당하는 ‘주변분포의 원칙(周辺分布の原則)’은 ‘인접분포의 원칙(隣接分布の原則)’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A-B-A와 같은 주변적 분포가 없다 해도 역사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바타 다케시(紫田武)가 발견했다. 다음 [그림 11]은 이토이가와(糸魚川) 지방의 ‘kataguruma(肩車:목말)’의 역사를 인접분포의 원칙을 통해 보여주는 언어지도이다. 이 언어지도를 통해서 ‘kataguruma(肩車:목말)’는 tenguruma(テングルマ)→jifjikaka(シシカカ)→kakkarakatu(カッカラカツ)→kattendondoN(カッテンドンドン)→ochigosan(オチゴサン)과 같은 변천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시바타 다케시(紫田武 1969)는 2가지 언어지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즉 “언어지리학은 언어사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p.11), “언어지리학은 언어사학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p.189). 그는 방언의 지리적 분포를 다루는 것이 언어지리학이 아니라 방언의 분포를 근거로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언어지리학이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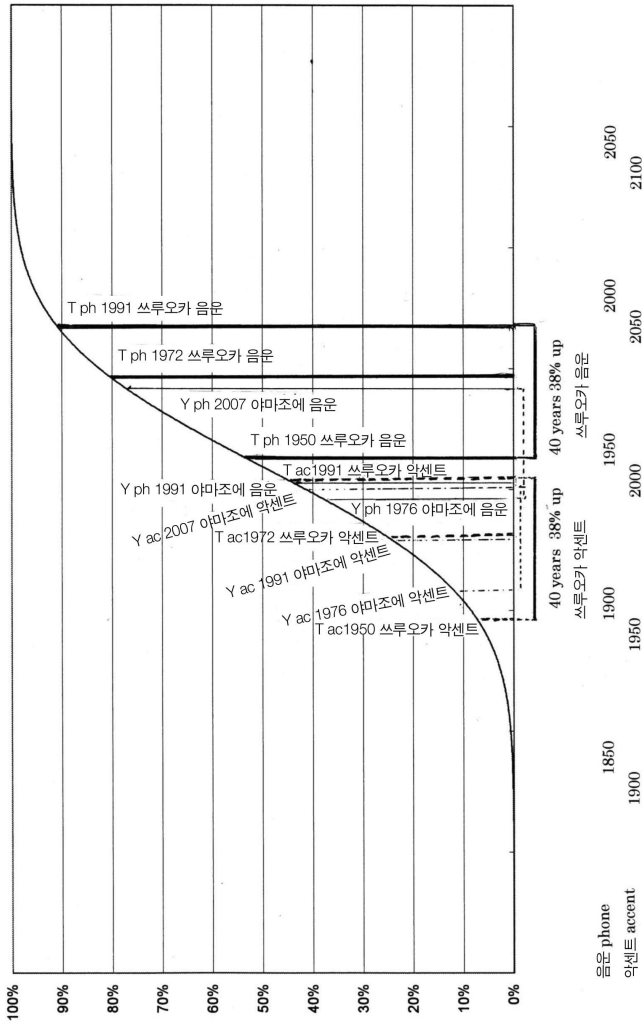


[그림 11] 이토이가와(糸魚川)지방의 ‘kataguruma(肩車:목말)’ 지도

4.6. S자-곡선(S-curve) 이론 분석

어떤 변화의 전과 과정에서 S자-곡선이 관찰되는 것은 이미 지리학이나 생물학 등에서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다. 언어학 분야에서 어휘 확산의 과정을 보여주는 패턴이 S자-곡선이다. 이 이론은 Bailey(1973: 77)가 제안한 것으로 원래 어형과 개신형이 경쟁하다가, 개신형이 원래 어형을 물리치고 대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언어 변화의 곡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다가 20% 지점 정도에서 갑자기 변화 양상이 가속도가 붙고 언어 변화가 완결되는 80~90% 지점에서 가속도가 줄면서 완만하게 변화가 끝나는 것을 도식화한 형태인데, 마치 ‘S’자 형태처럼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런 명칭을 붙였다.

일본의 경우 쓰루오카(鶴岡)·야마조에(山添) 6회의 조사를 통해 음운 공통어화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그림 12]의 S자-곡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에서 3번씩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리적 전파를 입증할 수 있었다. 언어 개신의 전파는 중심 지역(공통어 지역)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와 근교 농촌 사이에는 지리적인 조건과 아울러 사회적인 거리가 있고 공통어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림 12] 쓰루오카·아마조에 S자 키브 각 3회의 음운 약센트 평균치(井上史雄 2011: 258- *번역은 김덕호 외 2016: 355 참조)

- 13) S-curve 이론은 원래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언어 변화에 대한 빈도수를 통해 변화의 점진적 양상을 확인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지리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본 이유는 언어 전파에 있어서 중심 지역 개신파의 전파 속도가 연구 대상인 중간 도시의 경우와 근교 농촌의 경우의 지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비교 분석했기 때문이다.

앞의 [그림 12]를 분석해보면 조사 시기와 대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두께와 선의 형태를 바꾼 수직선을 아래쪽으로 그려 구분하고 있다. 음운은 실선으로, 악센트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쓰루오카는 굵은 선으로, 야마조에는 가는 선으로 나타냈다. 조사 실시 연도를 실마리로 실제 조사 시기(실시간)의 격차 사이에 평균치가 S자 곡선을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S자 커브에 잘 부합했다. 또한, 단순한 경사 직선 위에 각 조사의 수치와 그래프를 시험적으로 구성해 보았지만, S자 커브 쪽에서 더 적절한 커브의 중첩이 보였다. 이 그래프에서 쓰루오카·야마조에의 총 여섯 번 조사에서 음운·악센트 수치가 그래프 상 간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경년 조사 기간으로 볼 때 쓰루오카(굵은 선) 조사의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약 40년 동안 음운·악센트 모두 약 38% 상승을 보였다. 쓰루오카 조사의 음운·악센트 각각 38% 상승에 해당되는 가로축의 기간은 비슷하다. 이것은 평균치를 S자 커브에 배열하는 방법이 적절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40년을 평균화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1년 당 1%의 비율로 공통어화가 진행된 것이 된다. 야마조에(가는 선) 조사의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약 30년 동안 악센트는 30% 차이로, 쓰루오카 조사와 마찬가지로 1년 당 1%씩 공통어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야마조에의 음운에서는 40% 상승되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제3차 조사에서 급속한 공통어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쓰루오카 조사와 가로축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약 30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된다. S자 커브의 이론으로 보자면中间的 빠른 단계에 해당되므로 지난 30년간 수치의 급상승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쓰루오카의 40년간, 그리고 야마조에의 30년간 조사의 간격을 단서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쓰루오카·야마조에의 총 6번의 조사 전체가 S자 커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령 커브가 거의 S자 커브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총 6개 조사 시기의 격차를 연결했다. 음운 변화의 소요 연수, 더 나아가 절대 연대(年代)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그래프에 적용시켜 소요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공통어화 변화의 발생에서부터 종료까지 총 200년 남짓 걸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井上史雄 2011: 246).

5. 맺음말

방언 분포의 변화에서 언어의 역사를 읽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방언학의 연구 목적을 특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 방언학은 국어사를 연구하는데 보조적인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이러한 목표 설정이 방언학의 연구 범위를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야를 조금만 확장해보면 방언은 해당 지역에 내재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방언의 분포는 그 배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정보와 얽혀 있는 복잡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방언학 분야의 연구가 국어사 연구의 일부분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방언학은 특정의 목적에 초점을 둔 분야가 아니라 방언과 지리적 공간의 관계, 방언과 사회적인 현상과의 관련, 방언과 문화적인 기반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진 학문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방언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한다.

방언학 연구의 주된 입장은 언어를 지리적으로 분포되는 변이로 취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방언학의 출발점이었던 독일의 경우 언어의 변이현상을 취급하는 ‘변이언어학’의 한 분야로 규정한데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지역 언어의 복잡한 분포 변화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변화와 관련 있는 환경은 지리적인 측면만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존립과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 김덕호(2015)에서는 3가지 분석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안과 둘째 사회방언학적 분석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방언학적 분석 방안이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먼저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법에는 첫째, 산경표(산)나 수계(강) 등과 같은 지형적인 조건에 의한 문화적인 배경이 언어 분포의 변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서 분석의 근거를 삼는 ‘언어 외적인 조건에 의한 분석’이다. 둘째는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동일 지역을 조사하고 실제로 변화된 언어 분포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실재시간(real time) 분석’이다. 셋째는 언어가 통로를 따라 마치 기어가듯이 점진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출발한 ‘전파 속도의 계측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몇 개의 대상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글로토프그램을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신파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여 앞으로 언어의 이동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며, 방언형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전파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는 언어 전파가 중앙(핵방언 지역)에서 생긴 언어 변화를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정하고 순차적인 분포 변화의 모습을 조감할 수 있다고 전제한 ‘방언주권론 분석(Surrounding-zones dialect theory)’이다. 다섯째는 언어의 역사를 언어지도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지리적인 인접성과 주변성이 분포 변화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인접 분포의 원칙과 주변 분포의 원칙’이다. 여섯째, ‘S자-곡선(S-curve) 이론 분석’인데 원래 S자-곡선(S-curve) 이론은 사회언어학에서 특정 지역의 언어 변화 양상을 검증하는 방법이지만 개신파의 중심 지역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 지역을 두 지역 이상으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할 때는 지리언어학적인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은 본고에서 소개한 여섯 가지 방안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만으로 방언 분포의 변화 양상을 모두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이 알려진 방법임을 밝히면서, 본고에서 제시하지 못했거나 놓친 방법은 필자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향후 본고의 제안을 뛰어넘는 다양한 지리언어학적 연구 방법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숙(2014), <한국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변화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 김덕호(2001), <경북방언의 언어지리학>, 월인.
- 김덕호 편역(2009), <지리언어학의 동향과 활용>, 역락.
- 김덕호(2012), <한반도 '김치' 명칭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 <방언학> 16, 287~326, 한국방언학회.
- 김덕호(2014),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론총> 61, 9~44, 한국문학언어학회.
- 김덕호(2015), <20세기 초 한반도 언어지도 제작과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언구재단.
- 김덕호(2015),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지리, 사회, 문화적 분석 방안>, <언어 접촉과 문화 간 의사소통>, 67~90, 2015년 한국사회언어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김방한(1992),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 박지수·김덕호(2015),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69, 317~357, 한민족어문학회.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송완용(2008), <언어사 연구와 언어지리학의 공헌>, <언어와 정보사회> 9, 1~16,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 송완용(2009), <독일 방언학의 전통과 현 좌표>, <방언학> 9, 7~64, 한국방언학회.
-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익섭·전광현·이광호·이병근·최명옥(2008),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 Bailey, C. J. (1973). *Variation and linguistic theor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Bloomfield (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Chambers & Trudgill (1980). *Dialectology*. Chambridge Univ., Press.
- Downes, W. (1998). *Language and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v, W. (1994).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Blackwell.
- Sapir, E. (1921).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Harcourt, Brace.
- Trudgill, P. (2004). *New-Dialect Formation*. The Inevitability of Colonial Englishes.
- 大西拓一郎(2008), 《現代方言の世界》, 朝倉書店.
- 徳川宗賢(1993), 《方言地理学の展開》, ひつじ書房.
- 柳田国男(1930), 《蝸牛考: かぎゅうこう》, 刀江書院.
- 馬瀬良雄(1992), 《言語地理学研究》, 桜楓社.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上・下, 東京: 岩波書店.
- 柴田武(1969), 《言語地理学の方法》, 筑摩書房.
- 紫田武(1984), 〈方言地理學〉, 《方言研究法, 講座方言學》 2, 61~90, 圖書刊行會.
- 井上史雄(2003), 《日本語は 年速 1きろで動く》, 講談社現代新書.
- 井上史雄(2011), 《經濟言語學 論考》, 明治書院: 김덕호·김순임·양민호·안미애 역
(2016), 《경제언어학》, 역락.
- 真田信治 外(1995), 《社會言語學의 方法》, 時事日本語社.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放: 〈鋏〉語考》, 京城 : 東都書籍.

김덕호

idhkim@knu.ac.kr

논문 접수일: 2017년 2월 1일

논문 심사일: 2017년 2월 10일~2017년 3월 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3월 13일